

축산 소식

한우

“한우자조금,
한우 소비 확대 영향 컸다”

축산경제연구원, '효율성 분석 결과' 밝혀



2006년 한우자조금이 처음 도입돼 2010년 6월까지 쓰여진 한우고기 소비촉진 광고효과가 월평균 123톤의 한우고기 추가 수요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투자이익율로 환산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및 한우농가가 거출한 자조금에서 지출한 광고비 1원당 평균 3.59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연구됐다.

이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 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한 '한우자조금 효율성 분석결과'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한우자조금이 2005년 8월 첫 사업

을 시작한 이후부터 2010년 6월까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소비촉진관련 부문 지출액은 총 319억원으로 동기간동안 월평균 약 123톤의 추가 수요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한우값 지지와 소비 시장 확대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우 쇠고기 자급률은 2009년 50.1%로 2008년 47.6%보다 높아졌고,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량도 2008년 7.5kg에서 2009년 8.0kg으로 증가했으며 한우자조금이 소비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축산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자조금과 자조금 운용에 대한 농가 인식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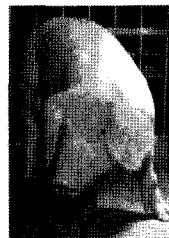
축산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자조금 활동에 대한 지지도는 적극지지(36.6%)와 지지(42.4%)로 긍정적인 답변이 78.8%에 달하고 있으며 한우자조금 운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70.1%로 조사됐다.

축산경제·육미영기자·omy@chukkyung.co.kr

양돈

돼지고기,
DNA 분석키트 개발

품질평가원, 전진태·이정규 교수팀에 의뢰



돼지고기 이력추적을 위한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신속한 원인규명을 지원할 수 있는 돼지고기 DNA

분석키트가 개발됐다.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유병린)은 농림기술 개발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5억 1,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경상대학교 전진태, 이정규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돼지고기 이력추적을 위한 DNA 분석 키트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DNA 분석 키트의 경우 한 번의 분석으로 13종의 DNA의 유전자 지문과 암, 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 분석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분석 방법의 경우 13종의 DNA 유전적 지문과 암,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3회에 걸쳐 실시했지만 이번 키트의 경우 한 번에 가능해 분석비용과 시간을 2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소에 비해 두수가 많은 돼지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브랜드 및 지역 단위 이력추적에 대한 현장적용 검증을 위해 전형매교배 집단 1,238두를 대상으로 친자감별을 실시한 결과 100% 친자를 확인해 DNA 분석 키트의 안정성 검증을 완료했다.

또한 분석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정할 수 있도록 표준시료를 도입해 분석기기 및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오차값을 규칙적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DNA 분석 키트 개발로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같이 이력추적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돼지고기도 DNA 분석을 병행한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면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육 및 둔갑육 단속 및 근절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경제 • 한정희 기자 • penergy@chukkyung.co.kr

양계

세계 최초

계란요구르트 개발 성공

위염, 여드름 예방 등 질병예방용 기능성 요구르트 생산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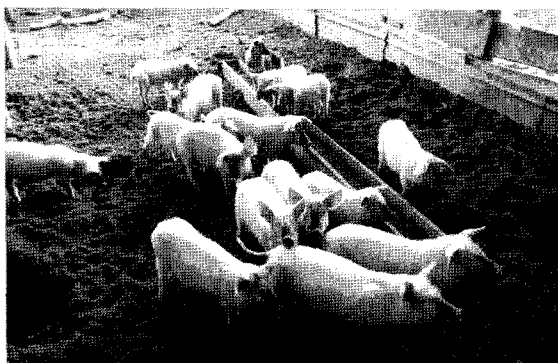


30여년간 계란연구에 몸 담아온 유익종 박사(주)유담 이사가 세계 최초의 계란을 유산발효하여 알레르기가 없는 계란 요구르트의 생산기술을 개발하는데 성

공함으로써 기존의 계란가공산업 분야의 기술 향상과 우리나라 계란가공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계란요구르트는 지난달 2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2010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수상하면서 그 진가를 발휘했다.

이번에 개발한 계란요구르트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소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계란알레르기 증상을 없앤 제품으로 비린내까지 제거하여 계란의 영양과 유산균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성인뿐 아니라 알



레르기가 염려되는 유아 및 어린이에게도 인기가 있는 새로운 건강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란요구르트 생산기술은 제조공정 뿐 아니라 생산에 대한 원천기술로서 이를 응용하여 마시는 타입, 떠먹는 타입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생산이 가능하며 계란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뿐만 아니라 위염, 장염, 여드름 예방 등 다양한 질병예방용 기능성요구르트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계란시장에 희망으로 다가서고 있다. 유익종 박사는 현재 본 기술에 대해 시제규모 및 시판규모의 시험생산을 마친 상태이며, 국내 및 해외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하거나 본 기술에 의한 생산된 제품을 시판할 업체를 물색중에 있다.

라이브·홍귀남기자·xd4078@hanmail.net



낙농 체험목장 교육교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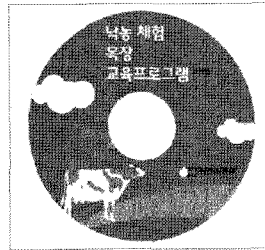
낙농진흥회, 교육기능 강화

학교에 보급키로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낙농목장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교재(사진)가 드디어 나와 체험목장의 교육기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 12일 낙농체험목장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낙농체험목장 및 일선 학교에 보급키로 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서울교육대학교 김정원 교수가 책임을 맡아 개발됐다. 특히 그 동안 체험목장들이 경험에



의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교육적 기능이 다소 미흡했지만 이번에 교육프로그램에 개발됨에 따라 낙농 체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

행할 수 있어 교육적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낙농체험을 연계시킴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어 낙농체험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저학년용과 고학년용 2가지로 개발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낙농체험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교육교재를 살펴보면 생명과 노동, 농업, 음식이라는 대주제를 설정해 각 주제별로 젖소의 하루, 목장의 하루, 축산과 환경, 유제품 체험 등 주제를 세분화시켜 각 소주제와 낙농체험을 연계시켜 교육적 기능을 강화했다. 낙농진흥회에는 교육교재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체험목장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종식후 개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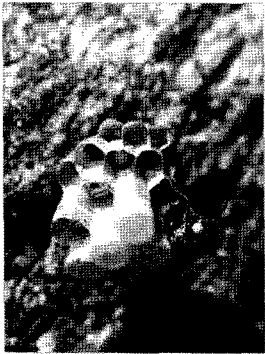
이와 함께 교육교재는 일선학교에 보급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낙농체험에 관심을 갖고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 이희영기자 • lhyoung@chuksannews.co.kr

양봉

**프로폴리스 함유
기능성 쌀 나왔다!**

한식연 개발 “항균·항산화·면역기능 강화”



한국식품연구원(원장 이무하)은 국내 쌀의 소비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기술의 일환으로 꿀벌의 천연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기능성 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나무·꽃·잎 등으로부터 수집하는 특수한 물질을 타액과 혼합시켜 만든 것으로, 항균·항박테리아·항바이러스·항산화·면역기능 등과 같은 생리활성적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내·외과 질환의 치료와 예방용 소재, 식품분야의 신선도 증진 소재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한 쌀은 항산화 및 항균효과가 일반 쌀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항산화작용은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를 무독화 상태로 체내에서 배출, 소거해 노화·암 등의 질병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국식품연구원측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세은 한식연 산업원천기술연구본

부 박사는 “프로폴리스 코팅쌀의 경우 쌀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지방산가의 변화가 적어 일반 쌀에 비해 밥맛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항균 및 항산화효과가 우수한 프로폴리스 기능성 쌀의 개발로 국내 쌀 소비촉진과 수출증대, 그리고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 김광동 기자 • kimgd@nongmin.com

양육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한국양육협회에서는 2011년도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한다.

녹용가공산업육성지

원사업은 녹용 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수매)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수급조절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녹용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하여 양육농가의 소득 증대 및 고품질의 녹용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 산업이다.

2010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되는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11년 1월 14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육협회 제공